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김대우 감독
'히든 페이스'

에로티즘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감독이 이번 영화에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추가했다. 에로티즘과 미스터리 스릴러의 결합은 영화 '원초적 본능'(1992)이 대표적으로 떠올려진다. 한국적 에로 미스터리 스릴러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느 만큼 진화했는지 기대감을 갖게 했다.



김대우 감독 '히든 페이스'.

(주)NEW 제공

지휘자 성진(배우 송승헌)과 첼리스트 수연(배우 조여정)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수연의 어머니이자 오케스트라 단장인 혜연(배우 박지영)이 마련해준 단독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새 살림을 차렸다. 어느 날 수연은 결혼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베를린으로 간다는 동영상을 노트북에 남기고 사라진다. 머리칼을 부여잡으며 고뇌하는 성진. 혜연은 하루 이틀 있다가 돌아오려니 했지만 수연은 연락이 없다. 공연을 앞둔 오케스트라는 수연의 빈 자리를 채울 첼리스트 미주(배우 박지현)를 채용하고 우연처럼 성진은 미주에게 빠져든다.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 '히든 페이스'는 콜롬비아 안드레스 바이즈 감독의 영화 'Hidden Face' (2011)가 원작이다.

한국적 정서에 이런 소재의 영화가 있다고? 하는 의구심은 콜롬비아의 영화가 원작이라는 데서 뭔가 면죄부를 빌려왔다는 느낌이다.

'에로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의 소재가 '퀴어'라는 놀라움으로부터. 그렇지만 원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감독의 의도로 각색된 추가 소재가 있다. 요즘 들어 한국 영화에 간혹 퀴어 소재가 등장한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정년이'에도 살짝 이런 느낌이 깔려 있었다는 생각이다. 영화나 미디어는 그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한국적 사회상황은 대체 어떻게 소재로 부상하는 것일까?.

입소스(Ipsos)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성소수자 비율이 글로벌 평균 9%이며, 한국의 경우 7%라고 보고하고 있다. 브라질(15%), 스페인(14%), 스위스(13%)에 비해 낮지만 일본(5%), 페루(4%)보다는 높다.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영화 소재로 등장할 만하다.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는 영화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 '기', '갈', '성'으로 요약되는 본성이 있다. 이른바 '이드(id)'의 영역이다. 생물학적 본능적 욕구이자 긴장과 충동을 유발하는 이드를 보다 현실적이고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에고(ego)'

를 우리는 교육을 통해 학습하며 자란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얻는 도덕적 윤리적 '슈퍼에고(super-ego)'를 통해 이드와 에고를 조율하며, 때로 통제하며 살아간다.

영화는 때로 긴장을 풀어주는 이드의 세계로 객석을 인도한다. 그렇지만 감독의 의도나 메시지를 잘 장치했을 적에 단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소재의 수단이 구성의 일환으로써, 나아가 예술로서 승화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적정수위를 자칫 넘기면 아슬아슬한 집착이 된다. 인간의 집착이 파생하는 파괴적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소유욕이 빛어내는 왜곡된 결과는 어떤 형태로 굴절되는가. 감독은 자신이 갖는 관음증의 시선을 수연과 객석에게 넘긴다. 그리고 신과 시퀀스를 통해 도덕적 경계에 대한 질문을 매우 아슬아슬 던지고 있다. 미스터리 한 분위기와 함께 배우들이 표현해 내는 심리묘사, 연기력이 워낙 섬세해서 감독이 요구하는 전반부의 긴장감이 잘 조성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작과 전혀 다른 결말에서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된다. 물론 열린 결말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감독의 의도를 읽어내기가 어렵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배우 박지현의 결단이다. 예술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할까만은, 최근인 2023년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배우 사론 스톤에 관한 판결이 생각난다. 배우 사론 스톤(65세)이 30년 전에 찍은 영화 '원초적 본능' 때문에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긴 판결이다. 필자가 아는 음악인들은 늘 음악 얘기만 하는 편이다. 클래식 음악에 빠져 음악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영화에서처럼 그들의 연주를 통해 얻는 감명 뒤안엔 있을 법한 히든 페이스는 웬지 상상하기 싫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책임 없는 쾌락

취재수첩
한규빈
취재2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책임 없는 쾌락'
강기정 광주시장의 체육 행정을 보면 떠오르는 말이다. 강 시장은 프로 스포츠 현장 곳곳에 얼굴을 내비치며 열혈 스포

츠맨을 자처하지만 정작 스포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에는 소홀한 듯 하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KIA는 선수단 일정 등을 이유로 행사 개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시가 KIA 우승을 시정 홍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IA는 기업 구단이고, 시는 단순한 연구지에 그치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야구장에 자주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개막전에서 타이거즈 우승 40주년을 기념해 시구에 나선 원년 어린이 회원 팬이 탄 시구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양 팀 감독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올해 개막전에서는 직접 시구에 나섰다.

한국시리즈 3차전 당시에는 KIA가 준비한 응원전 현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모두 KIA가 관련 비용을 부담했고, 시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구단주를 맡은 광주FC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시로부터 연간 1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광주FC는 올해 아시아 무

대에 진출하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됐다. 최근 10억6700만원의 추경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됐음에도 어떠한 리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잔디 훼손과 제3구장 개최에는 대형 콘서트 개최와 광주시체육회의 복구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면에는 시의 대관 실적 압박이 있었지만 일체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강 시장은 최근 광주FC가 여러 상황들로 비판의 중심에 서자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 벌써 2개월째 발길

을 끊었고 이 사이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는 광주FC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지목되는 등 석연찮은 일도 있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에서는 개막전 시구를 펑크내기도 했다. 강 시장은 올 시즌 홈개막전 시구자로 결정된 상황이었으나 당일 오전에 불참 통보를 전달한 뒤 KIA의 응원전 현장으로 향했다. 결국 페퍼저축은행은 장매튜 구단주를 코트에 올렸다.

강 시장의 행보는 프로 스포츠 현장이 단순히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 진정으로 강 시장이 광주를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면 그에 어울리는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